

왕년의 오빠들과 댄스타임 '어떤가요'

90년대 붐비 현진영·노이즈·R.ef 이성욱 30일 서울서 콘서트 '어떤가요' 무대에

1990년대 X세대 대표 스타 현진영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의외의 히트를 경험했다. 그의 옛 무대 영상에 4세대 걸그룹 뉴진스의 음악을 입힌 이른바 '현진스' 영상들이 많게는 수백만뷰를 기록한 것이다.

뉴진스의 최신곡 '슈퍼내추럴'도, 현진영의 '아한 여자'도 모두 '뉴 잭 스윙' 장르라는 공통 분모를 토대로 만들어진 콘텐츠였다. 이는 레트로 유행이 2000년대 전후를 조정하는 Y2K에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장면과도 같았다.

현진영은 때마침 1990년대를 함께 품미한 노이즈(한상일·홍중구), R.ef(이성욱)과 30일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기획 콘서트 '어떤가요 #10 - 추억의 댄스 가수 특집' 무대에 오른다.

최근 예술인 지원 공간인 서울마포음악창작소에서 공연 준비에 한창인 현진영과 노이즈를 만나 인터뷰했다.

현진영은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당시에는 하나의 플랫폼(TV를 지칭)에서 많은 배우나 가수가 인기를 얻고 예술성을 펼쳤다면, 지금은 여러 플랫폼이 마련됐다. 하지만 '모공까지(화면에) 나오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메이크업 한 번 잘못되면 계속 회자하지 않느냐. 예술인 입장에서 조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는 낭만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짚었다.

현진영은 1990년대 강원래·구준엽과 함께 한 '현진영과 와와'로 데뷔해 미국식 흑인 힙합 음악과 백업 댄서 형

'흐린 기억속의 그대'·'상상속의 너' 등 히트곡 들으며 1990년대로 시간여행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 향수 불러 노이즈 "레트로 공연 무대에 피 끓더라"

식을 국내에 보급했다. '흐린 기억속의 그대', '슬픈 마네킹', '두근두근 쿵쿵', '현진영 GO(GO) 진영 GO(GO)' 등의 히트곡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의 후드티 패션과 토끼춤 등도 덩달아 유행했다.

현진영은 "지금은 '현진스' 덕분에 Z세대가 나를 알기 시작했다"며 "논문을 쓰듯이 내게 '가사 누가 썼냐, 이 앨범의 프로듀서는 누구였냐, 기타는 누가 쳤냐' 등 궁금한 것을 내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물어본다. 노래 콘텐츠는 조회 수가 잘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내가 정작 예능에 나가면 화제가 딱 떨어진다"고 너스레도 떨었다.

현진영은 SM엔터테인먼트 제1호 가수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발탁해 트레이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수만 선생님이 1988년 '아한 여자'와 '슬픈 마네킹'을 미국에서 제작한 뒤 한국에서 활동시킬 것을 생각하고, 노래에 어울리는 토끼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게 바로 나"라며 "나는 미8군 근처에서 자라서 흑인 친구들이 많았기에 그런 춤을 전부 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진영은 또한 아이돌 가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헤드셋 마이크를 국내 음악 시장에 대중화한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K팝의 핵심 요소인 화려한 안무가 가능해졌다.

현진영은 이번 '어떤가요' 콘서트에서 '흐린 기억속의 그대', '소리쳐봐', '현진영 GO(GO) 진영 GO(GO)', '두근두근 쿵쿵' 등 인기 대표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그는 최고 히트곡 '흐린 기억속의 그대'에 대해 "실은 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 21살짜리가 사모곡을 부를 순 없어 연인으로 바꾼 것"이라며 "도입부 '안개빛 조명은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황하던 시절을 의미한다"고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현진영이 흑인 음악으로 유행을 선도했다면, 노이즈는 귀에 맴도는 편한 하우스 음악과 세련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노이즈는 지난 2016년 JTBC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으로 오랜만에 대표 히트곡 '상상속의 너'와 '너에게 원한 건'을 들려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노이즈 한상일은 "1990년대를 조명하는 X세대 공연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공연을 보러 갔는데, 피가 끓더라"며 "우리로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끊어질 않았고, 그래서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멤버 홍중구는 "1990년대 하면 VHS(비디오테이프) 같은 복고 느낌이 있다"며 "이번 콘서트에서는 음악 편곡



현진영

을 많이 바꾸지 않고, 예전에 들었던 알만한 노래들을 그대로 소환시켜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이즈의 '목소리' 역할을 했던 홍중구의 쫄깃하고 감각적인 보컬은 그대로다. 그는 "1990년대 활동 당시에는 내 목소리랑 얼굴이 매치가 안 돼 얼굴이 나가면 음반 판매량이 떨어진다며 라디오만 내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시절 노래와 춤을 다시 보시면 예전만큼은 못해도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한상일)

"최대한 옛 원곡 그대로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1988년 처음 보컬 레슨 받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호흡과 발성 연습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게 여전히 춤추면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현진영)

/연합뉴스

'오징어게임2' 넷플 구원할까

홍행작 부재에 이용자 감소...연말 오픈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1위 기업인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연이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면서 이용자 규모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2월 공개될 '오징어 게임' 시즌2 등 기대작들이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관심을 모은다.

18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8월 5~11일)까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세계 시청 수(Views) 주간 1위를 기록한 것은 총 일곱 차례다.

'기생수: 더 그레이'가 두 차례 1위를 차지했고, '선산'과 '살인자ㅇ남감', '피지컬:100' 시즌2, '더 에이트 쇼', '하이리키'가 각각 한 주씩 1위에 올랐다.

2021년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1, 2022년 5주 연속 1위에 오른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다섯 차례 주간 1위를 차지한 '더 글로리'의 뒤를 잇는 흥행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부진은 최근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자사 플랫폼에만 공개한다는 점에서 구독자 확보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가 OTT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를 조사한 결과 넷플릭스는 6월 말 기준 1096만명으로 작년 12월 1306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16%가량 줄었다.

원순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대표는 "2021년 '오징어게임'을 중심으로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는 범죄 스릴러 장르가 큰 호응을 얻었는데, 범죄 스릴러물의 경쟁력은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 별세

향년 88세... '태양은 가득히' 등 세계적 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 배우인 알랭 들롱(사진)이 88세의 일기로 타계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자녀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 자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버지 들롱이 나빠진 건강과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고 전했다.

성명은 "알랭 파비앙, 아누슈카, 앙토니, 루보(들롱의 반려견)는 아버지의 별세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슬퍼하고 있다"며 "그는 두시에 있는 자택에서 세 자녀와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들롱은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에서 신분 상승의 욕구에 사로잡힌 가난한 청년 역할로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배우다. 1957년 영화계에 발을 들인 후 50여년간 평단과 대중의 환호 속에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이 중 80여 편에서 주연을 맡았다.

'세기의 미남'이란 별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태양은 가득히 외 대표작으로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1966), '태양은 외로워'(1962), '불사리노'(1970), '조로'(1975) 등이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스크린에서 거의 볼 수 없었으며,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받은 후에는 요양 생활을 해왔다.

/연합뉴스



'노이즈' 멤버 한상일



'노이즈' 멤버 홍중구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